KT&G 전남본부, 전남 인재 육성 장학금 2000만원 기탁

KT&G 전남본부(본부장 최재영)가 최근 지역 우수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남도의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바른, 깨어있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실천 차원에서 KT&G 전남본부는 임직원과 회사 기부금을 1대1로 매칭해 만든 '상상펀드'에서 장학금을 내놨다.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최재영 본부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된 KT&G는 매출액 대비 3.4%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 환원 기업이다. 담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1500만 원 상당의 '상상나눔' 도시락을 지원하고, 전국 20개 기관 158개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특색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대 '나눔&희망'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나눔&희망'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열었다. 〈사진〉

올해 13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교직원과 자원봉사캠프, 호텔조리학과, 학생회 소속 학생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 100박스는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독거노인, 소년소녀,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홍상 호심사회봉사단장은 "광주대는 지역 상생으로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호심사회봉사단은 매년 농촌일손 돕기와 재능기부 활동, 사랑의 도시락 배달, 연탄배달 등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전남교육청

◇4급 승진

▲총무과 인사팀장 박상길

◇4급 전보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이정도 ▲순천대 파견 선승헌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이정래

◇5급 승진

▲고흥평생교육관 김영미 ▲여수여명학교 김경주 ▲한국창의예술고 나방주 ▲고흥고 이지영 ▲벌교상고 최현영 ▲장흥고 노춘심 ▲해남고 우범석 ▲해남공고 양하승 ▲영광공고 이준호 ▲진도실고 최영주 ▲한국교원대 파견 최정호 ▲순천대 파견 김윤기 ▲교육연수원 임 황 ▲학생교육문화회관 윤하진 ▲나주공공도서관 김경혜

◇5급 교육지원청 과장(센터장) 전보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마창우 ▲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김성주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대근 ▲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동수 ▲강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진곤 ▲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현섭▲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미애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영권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미숙 ▲신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영삼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심예서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백수호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영대

◇5급 본청팀장 전입

▲홍보담당관 김선복 ▲안전복지과 손인권 ▲체육건강과 이귀례 ▲총무과 선종관 ▲예산과 고상진 ▲재정과 고영우 ▲도의회사무처 정순길

◇5급 전보

▲나주공공도서관 차봉근 ▲안전체험학습장 이승철 ▲목상고 이영균 ▲목포여고 노진현 ▲여수고 조윤종 ▲여수석유화학고 박복병 ▲여수여고 김영미 ▲여수화양고 민정기 ▲순천전자고 채기원 ▲나주상고 김남 ▲전남과학고 박금섭 ▲호남원예고 안오남 ▲광영고 안정임 ▲한국항만물류고 박상남 ▲담양고 허행숙 ▲담양공고 박민호 ▲고흥산업과학고 나홍현 ▲화순고 박이재 ▲전남체육고 김상배 ▲장성하이텍고 김난의 ▲순천선혜학교 김유현 ▲교육부 파견 문희산 ▲한국교원대 파견 송명진 ▲한국교원대 파견 김미정 ▲한국교원대 파견 김현아 ▲광양공공도서관 심상미 ▲보성공공도서관 조정희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하나은행,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위한 성금 500만원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겨울나기 김장나누기 봉사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지사장 조창현)는 지난 13일 완도군 사회복지회관에서 지역 여성단체와 '따듯한 겨울나기 김장나누기 봉사'를 하고 취약계층 50여 세대에 김장김치와 쌀을 전했다. 〈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제공〉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열린채널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팬티의 계절〉(재)	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	00 애니갤러리 30 슈퍼다이노 45 하니와 숲속친구들
12	00 KBS 뉴스 12	15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아쉬탕가를 아시나요〉(재)	00 12 MBC 뉴스 25 일당백집사(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영상앨범 산(재) 30 어린이 동물티비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제29회 KBS-한전 음악콩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00 뉴스브리핑
3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뭉게공항(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마카앤로니 2 15 시크릿 쥬쥬 베스트프렌즈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광주 특집다큐 리멤버 미얀마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양들의 침묵〉	00 일타강사 50 일당백집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50 순정파이터
11	30 KBS 뉴스라인	10 커튼콜(재)	10 라디오스타	
12	10 시사기획 창(재)		50 금혼령(재)	30 7학년 주식회사(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하프와 친구들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35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20 EBS 친구들 씽씽
09:30 어떻게 만들까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한국의 둘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5:35 꾸러기 천사들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0 네가 빠진 세계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건축탐구-집
20:40 세계테마기행 〈파도가 좋아서, 발리·롬복 -롬복! 흥미진진 안내서〉
21:30 한국기행 〈찬바람 불면 겨울 바다 3부 삼치가 돌아왔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인간과 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28일 戊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말은 아끼되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48년생 적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2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84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 가지 않는 것이 낫다. 96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18, 86

丑 37년생 소상하게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49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함이 옳다. 61년생 한데 모여야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73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85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 오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라. 97년생 가급적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이 백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75

寅 38년생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50년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62년생 영욕의 부침이 심하여 그 파장, 또한 굉장하다. 74년생 이미 완전하게 결정 난 판국이니 전혀 여지를 두지 말라. 86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98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행운의 숫자 : 47, 65

卯 39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51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63년생 일방적이라면 경직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 75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 87년생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99년생 일시적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81

辰 40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흉성도 사라지리라. 52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 한다. 64년생 방도와 혜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76년생 식상함에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88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00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9, 58

巳 4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53년생 지나간 일이 사람들의 화젯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65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77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89년생 흉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01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 48, 93

午 42년생 착오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54년생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66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78년생 단처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도다. 90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02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85

未 43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55년생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67년생 요령껏 이행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79년생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91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03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09, 63

申 44년생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56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68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80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92년생 만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04년생 현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6, 95

酉 33년생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45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57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염원해 왔던 바를 얻게 된다. 69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93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2, 54

戌 34년생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있으리라. 46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58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70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82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판을 야기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 94년생 근원을 찾아 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89

亥 35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47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59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닥이 잡힐 것이다. 71년생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83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느니라. 95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자. 행운의 숫자 : 11, 68